

상호텍스트성과 삶에 대한 통합적 전망: 젊은 예술가의 모색*

이 인 기

『율리시스』(*Ulysses*)의 「텔레마코스」(“Telemachus”) 장은 억압적인 현실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이스의 고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영제국의 비정한 탄압과 억압적인 종교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없는 유혈사태로 점철된 정치적 항거의 역사와 무력한 아버지까지도 그에게는 영혼을 옥죄는 폭력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스티븐(Stephen)에게 투영되었고, 그는 이 인물을 통해 폭력적 현실의 속성을 적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타진했다. 스티븐은 그러한 악몽 같은 현실로부터 데달러스적인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 시도는 이카로스적 추락이 예견된 시도였다. 그는 그 현실로부터 자기추방을 결행해야 했는데, 이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 혹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구축적 현실의 폭력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저항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스티븐이 탈출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현실의 이면에는 조국, 종교, 아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버지라는 권력의 주체가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이데올로기를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사용한다.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지배 대상의 자발적 복종까지 유도하여 권력을 절대화하는 통로이다(301-03 참고). 스티븐은 그러한 통제 구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므로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파악한 듯 반응한다. 본고는 그 과정을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이데올로기의 작용과 그것에 대한 반응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관점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며 인간에게는 벗어나고자 하는 실존적 조건으로서 기능하는데, 이 사실을 중첩되는 텍스트들이 확인해준다. 그러나 젊은 예술가로서 그의 통찰은 그 이데올로기를 악몽 같은 역사의 동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추방을 결행하게는 하나, 그 결정이 미숙함의 표현일지 실존적 노력의 예술적 승화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호텍스트성이 암시하듯이 역사는 반복되며 실존적 조건 또한 여러 다른 상황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현상의 속성을 통찰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일상 그 반대의 경우와는 달리 지향할 이정표를 암시하기는 한다.

I. 상호텍스트성과 『율리시스』의 직조된 세계

알려진 대로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자율적인 텍스트가 아니다. 그는 호메로스(Homer)의 『오디세이아』(*Odyssey*)를 토대로 새로운 서사를 창조했다. 그 서사는 그의 당시 더블린의 하루를 살아가는 세 인물, 블룸(Bloom), 스티븐, 몰리(Molly)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오디세이아』의 텍스트를 변형한 것이다. 장군 오디세우스(Odysseus)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외되고 방황하는 평범한 유대인 블룸으로 치환되었다. 스티븐은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와 상응한다. 그는 정체성의 탐색, 자립, 성장의 길을 형상화한다. 몰리 또한 페넬로페(Penelope)의 현대적 변형으로서 원

형 인물의 정숙한 아름다움을 보편적 욕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한다. 이로 보건대, 문학 텍스트는 더 이상 고립된 창조물이 아니다. 다른 텍스트들과 연결되고 참조되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 즉,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가 기존 텍스트를 인용, 패러디, 변형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는 과정을 상호텍스트성이라 부른다. 이는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창작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기보다 전통을 활용하고 변주하는 활동임을 알렸다. 그녀에 따르면, “어떤 텍스트이든 인용의 모자이크로서 구성된다. 다른 텍스트의 흡수와 변형인 것이다”(66).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이를 급진적으로 확장하여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가 작가가 아니라 독자임을 주장하기도 했다(142-48). 그는 “텍스트는 수많은 인용들이 얹힌 직물”이라 말하며, 문화적 인용의 무한한 연결망 속에서 의미가 생성된다고 보았다(146).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텍스트의 원본이나 정설적 해석이 무의미해진다. 어떤 텍스트이든 끊임없이 다른 텍스트들과 상호작용하므로 그 의미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통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공격이거나 강고한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적 조류의 반향일 수 있다.

한편, 제라르 주네트(G rard Genette)는 상호텍스트성의 포괄성과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다섯 가지 하위 범주로 체계화했다. 그 가운데 하이퍼텍스트성(hypertextuality)은 『율리시스』가 『오디세이아』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방식을 가리킨다. “나는 하이퍼텍스트성을 텍스트 B(하이퍼텍스트, hypertext)가 이전의 텍스트 A(하이포텍스트, hypotext) 위에 주석이 아닌 방식으로 접붙여진 관계라고 정의한다”(5). 그는 그 관계를 팔림프세스트(palimpsest)로 형상화했다. 팔림프세스트란 고대에 귀한 양피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쓰인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글을 덧쓰

문서이다. 하지만 옛 글자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새로운 글과 겹쳐 보이곤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텍스트가 독창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이전 텍스트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텍스트는 과거 텍스트의 층 위에 다시 씌어진 것이므로 어떤 텍스트도 완전히 순수하게 새로울 수는 없다. 조이스는 『오디세이아』의 원본 텍스트를 지우고 그 위에 자신의 세계관을 덧쓴 셈이다. 원본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형함으로써 자신의 해석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를 통해 고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독자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율리시스』는 형식, 내용, 스타일, 심지어 문장 구조까지 고전 텍스트와의 교섭을 통해 형성된 문학적 팔림프세스트이다. 고전의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하이퍼텍스트로서 고전의 권위를 전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조이스는 『오디세이아』의 서사를 따라가되, 그 각 장을 중세 설교체, 신문 스타일, 연극 대사, 심지어 의식의 흐름 등 다양한 장르와 언어유희를 통해 전복적으로 재구성했다. 이처럼 하나의 중심 서사 대신 다층적, 다성적 담론을 전개함으로써 원본 작가의 의도까지도 해체하게 된다. 이로써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simulation)도 환기한다. 이는 바르트가 말한 대로, “저자의 권위가 무한한 의미의 장으로 대체되는”(147) 현상이다. 「텔레마코스」 장에서는 스티븐이라는 인물과 그가 처한 상황이 고전의 원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 및 상황과도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II. 스티븐의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에 따르면, 텍스트의 중심은 더 이상 작가나 특정 메시지에 있지 않고, 독자의 문화적 지식과 해석적 상상력에 따라 무한히 재구성되는 다층적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는 등장인물에게도 적용된다. “텍스트

의 바깥은 없다”(Derrida 158)라는 명제처럼 모든 것은 언어적 구조 안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언어의 체계 안에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창조된 인물도 텍스트이다. 스티븐은 조이스가 기존의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형한 텍스트인 것이다. 그는 텔레마코스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동명 인물도 환기한다.

그는 단순한 작가 지망생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거나 서사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전통적 인물과 연결되며 독자에게 복합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스티븐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 태동기의 첫 순교자 스테반 집사를 연상시키며, 조이스는 이를 통해 스티븐을 순교자적 인물로 구성했다. 스테반 집사는 누가복음의 저술자인 누가(Luke)가 기록한 사도행전 속의 인물로서 그에 의해 텍스트화되어 있다. 그도 누가의 해석을 거친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스티븐은 누가가 텍스트화한 인물과 상호텍스트적인 관계에 있다. 이는 인물들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해석에 머물지 않고 인물들이 등장하는 맥락의 유사성과 그 속성까지도 재해석할 계기가 된다.

누가는 자신이 사도행전이라는 서신을 기록했음을 밝혔고, 그 텍스트를 해석할 주체와 해석의 방향까지도 암시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사도행전 1.1-2)

편지의 수신자이자 해석의 주체로 지목된 데오빌로는 기록상 확인되지는 않으나 역사적 인물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Theophilus = Theos[God] + Philos[love, friend])를 지칭하는 구성적 인물일 수 있다. 그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을 해석해야 할 독자이다.

그는 예수의 형상이 어린 스테반 집사를 만나게 된다. 스테반 집사는 그리스도교의 태동기에 설립된 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명으로서 최초의

순교자이다. 그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인물인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 탄압에 직면했다. 결국, 그는 신성모독의 혐의로 공회에 끌려갔고 변론하는 중에 진리를 고수한 대가로 투석형에 처해졌다. 그는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사도행전 7.59)라고 소리 지른 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사도행전 7.60)라고 기도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마디의 기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올렸던 기도를 환기한다. 각각 누가복음 23장 46절(“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과 23장 34절(“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에 기록된 기도는 스테반의 것과 문구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취지가 같다. 누가는 스테반 집사의 모습에 예수의 형상을 접목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의 재현이며 동일한 의의를 지님을 암시한 것이다. 그는 예수에 대해 “주석의 방식이 아니라 변형 혹은 모방의 방식으로 원본에다 접붙여 [진]”(Genette 8) 상태이다. 주네트는 이처럼 원본에 “접붙여진”(grafted)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라고 불렀다.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포텍스트가 중첩 되었으므로 그는 종교 권력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예수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증인이자 내면의 자유를 지킨 자가 된다. 누가는 그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 즉 텍스트화했다.

그는 기록자이면서 동시에 해석자가 되어 스테반 집사의 죽음이라는 텍스트를 데오빌로가 재해석하도록 제시한 셈이다. 물론, 해석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면 원작자의 의도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게 되어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과는 모순되지만, 암시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해석의 자율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그 기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석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그의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을 연상하도록 안내했다. 작가의 의도가 표명된 셈인데, 이 경우에도 그 의도가 상호텍스트성의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의도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는 오히려 절대적 권위가 어떤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다. 스테반이 처형을 당하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사도행전 7.57-58). 사울은 당시 종교권력의 대변자로서 텍스트화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신봉하는 율법의 계율을 지키지 않고 그 전통을 비판하는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 죽음의 처벌을 가한다. 절대 권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보면, 그를 권력의 대변자로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빌립보서 3.5-6). 자기가 공언한 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만으로도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나 해석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그 암시의 논리적 근거인 듯 그는 처벌자들의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에 처벌의 현장에서 옷을 맡아주는 것은 공식적인 목격자와 증인을 자처하는 행위로서, 결국 그가 현장을 지배하는 권력 자체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그의 존재는 스테반 집사에게는 죽음을 의미했다. 그가 예수의 처형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스테반 집사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환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수의 처형을 사실상 주도한 세력의 화신이다.

조이스는 이러한 누가의 해석(텍스트)을 스티븐에게 접목했다. 그 인물은 겉보기에는 다소 냉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젊은 지식인이지만, 예술가로서의 진리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소외와 고립을 경험한다. 그 필박의 주체는 조국의 정치적 판도, 그리고 교회와 아버지의 권위인데, 그는 이들에 대한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 조국이든 교회이든 간에 섬기지 않을 것이다”(P 246-47). 이것들은 사울이 대변하는 절대 권력과 상관한다. 스티븐에게는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저항은 그로서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결단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그는

스테반 집사의 신앙 고백,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행적과 동일한 구조를 따라간다. 그도 지배적 권위와의 충돌을 감수하고, 죽음 혹은 고독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으나 『율리시스』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그는 지성과 예술을 추구하며 세속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립된 채 순교자처럼 떠돈다(Aneja 429-35 참고). 차이가 있다면, 예수와 스테반 집사는 신앙을 통한 순교자이고, 스티븐은 예술을 통한 순교자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순교자의 이름을 주인공에게 부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성경의 스테반 집사를 떠올리게 하고, 이를 통해 스티븐이라는 인물의 내면적 여정을 순교적 서사 구조로 재맥락화했다. 예수의 순교와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된 스테반 집사의 순교 서사는 스티븐의 예술가적 자아 형성의 서사에 변형된 형태로 “접붙여[지며],” 독자는 이 연관을 통해 스티븐의 고독과 고통을 단순한 실패가 아닌 영적, 미학적 승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조이스는 고대 기독교 순교자의 형상을 20세기 초 아일랜드라는 식민 사회를 살아가는 예술가이자 근대적 지식인의 모습으로 재현한 셈인데, 이러한 재현은 원형 서사의 구조를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장을 여는 상호텍스트적 창조 행위이다. 스티븐은 자신의 시대에서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으나 사회로부터의 배척, 예술가로서의 고독, 진리를 향한 고뇌를 통해 정신적 순교자로 자리매김된다. 따라서 「텔레마코스」 속 스티븐과 스테반 집사의 연결은 단순한 명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III. 이데올로기의 지배와 역사의 악몽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재맥락화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환기하고 무엇을 재해석하고자 하는가? 누가 보여준 예수와 스테반 집사의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스테반 집사와 스티븐의 상호텍스트성이 공통적으로 수렴

하는 지점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줄 것이다. 예수는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권력가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스데반 집사도 사울이 대표하는 종교권력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 스티븐은 자기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즉 가정, 조국, 교회의 권력에 저항했다. 상호텍스트성은 이러한 저항의 반복을 보여준다. 권력의 압제와 저항으로 인한 순교가 역사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 스티븐이 깨어나고자 하는 악몽이다. “역사란, 스티븐이 말했다, 내가 깨어나려고 애쓰는 악몽이야”(U 2.378). 이와 같이 권력의 압제와 순교가 역사 속에서 반복되므로 이는 인생의 속성도 암시한다. 권력과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도식화할 수 있기는 해도 실제로 순교적 상황에 내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속성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환기한다. 이처럼 상호텍스트성은 과거의 현상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오늘날에는 과거의 재현을 통해 현상의 속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1. 이데올로기와 권력 기관의 호명

스티븐을 통해 재맥락화된 역사의 악몽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 악몽의 중심에는 권력 기관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그 기관은 국가를 가리킨다. 국가는 경찰, 군대, 감옥 같은 물리적 억압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알튀세르에 따르면, 그러한 억압적 국가 기관(Repressive State Apparatus, RSA)과 더불어 교육, 종교, 언론, 가족 등 비강제적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를 통한 지배 제도인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관(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AIEs)¹⁾도 개인을 통제한다. 특히, AIEs는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을 자발적 복종의 주체로 만드는 통로이다. 그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AIEs를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

1) 알튀세르의 저서의 영문번역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관의 약어를 ISA로 표기해야 하나, 원문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이 명칭이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원래 명칭인 Appareils Idéologiques d'État의 약어인 AIEs를 이후 인용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는 이데올로기의 전달 네트워크로 보았다(143). 스티븐에게 그 자본주의 체제는 가정, 조국, 교회이다. 그는 그것들을 권력 기관으로 지목했다. 여기서 조국은 정치 영역을 대변하며 영국의 지배와 민족주의적 세력의 압박을 포괄한다. 그는 RSA와 AIEs를 포괄하는 권력 기관을 억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알튀세르는 AIEs의 핵심 매체로서 학교, 가족, 미디어를 거론했다. 이러한 AIEs는 직접 억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을 체제에 포섭한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하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종하게 하고 그 복종의 실천을 숙달하게 한다”(133). 이러한 실체적 제도로서 학교는 식민지인들을 공식적으로 ‘교육하는’ 대영제국의 존재와 역할을 암시한다.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정상’으로 선전하며, 대중이 그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이는 스티븐이 벅 멀리건(Buck Mulligan)에게 비정상적 인간으로 매도당한 데다가 하루 종일 소문과 편견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회적 규범을 주입하는데, 이로써 개인이 사회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든다. 스티븐이 부모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그들의 압력을 반증한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에 복종하게 만드는 과정을 알튀세르는 호명(interpellation)이라 부른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 개인을 구체적인 주체로서 호출하거나 호명한다”(174). 호명을 통해 권력에 복종하게 되므로 여기서 주체는 사실상 신민(臣民, subject)의 다른 말이다.

스티븐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은 멀리건이다. 그는 스티븐을 호명한다. 그를 피억압자의 자리로 불러낸 멀리건은 가정, 조국, 교회를 모두 대변한다.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한 아버지처럼 오히려 스티븐에게 돈을 뺏아내려고만 하면서 집주인 행세까지 한다. 급기야는 집 열쇠도 요구한다. 스티븐이 집세를 내고 있는데도 쉽(Ship) 주점에서 질편하게 놀 생각만 한다. 그리고 회화화된 모습이지만 신부 흉내를 내며 스티븐의 양심의 가책을 부추긴다. 그가 어머니 임종 석

상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면서 그가 어머니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비난한다. 그는 주점에서 어떤 사람이 스티븐에 대해 지껄인 “g.p.i. . . . 미친 놈의 전신 마비”(U 1.128-29)와 그가 주절거린 “자기 어머니가 짐승처럼 죽은 데덜러스”(U 1.198-99)라는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그에게 덧씌운다. 그리고 그는 영국인 헤인즈(Haines)에게 아일랜드의 민속에 관한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스티븐으로 하여금 변질된 민족주의에 대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게도 한다. 이러한 행태로써 그는 스티븐을 비이성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허위의식 아래 가두어서 통제하려고 했다.

그 통제적인 행태를 암시하기라도 하듯이 그에 대한 묘사는 “당당하게”(Stately)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그 단어를 형용사로 보든 부사로 보든) 그가 허세를 곁들인 품위(a dignity-cum-pomposity, Benstock 2)를 가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만일 멀리건을 플라톤(Plato)의 국가 체제와 연결한다면, 공교롭게도 그 단어는 그의 행위를 억압적 국가 기관의 활동으로 연상하게 만든다. 그가 스티븐과 헤인즈와 함께 기거하는 마텔로탑은 외적 방어로 용으로 축조된 건물이므로 그러한 연상을 지지한다. 실제로 그는 ‘국가처럼’(Stately) 지배적 태도를 드러내며 짐짓 종교의 위광도 이용하는 인물이다. 그가 탑의 난간 꼭대기로부터 내려오면서 면도 용구들로 사제 흉내를 내는 것은 위계질서에 종교적 제의의 후광이 결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더라도 그 자신도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플라톤의 국가 구성에 따르면, 통치자는 철학자가 말아야 하지만 그에게서는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부식하려고 애쓰는 모습만 두드러진다. 한편, 스티븐은 집세를 내고 술값을 지불하는 등 수입원을 제공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 헤인즈는 충을 들고 소란을 벌였으므로 군인의 역할을 흉내 낸 듯하다. 그러니까 탑 속의 인물 구

2) Stately로 시작된 첫 단락에 이어진 단락의 첫 구절에서 “장엄하게”(Solemnly, U 1.9)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부사로 사용되고 있어서 배치상 유사성에 따라 Stately도 부사로 봄 적하다.

성은 지배자, 생산자, 군인으로서 플라톤의 주장대로 국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대변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 역량은 진정성보다는 역기능을 회화적으로 폭로하는 효과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공간에서 거주하기에 조화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한 공간에 기거하는 상황 자체가 회화적이다. 따라서 그가 지배하려는 공간에서 드러내는 그의 “당당[한]” 모습은 그의 허위의식을 사실상 직설하고 있다.

원래 탑은 수직적 구조가 두드러진 건축물로서 국가 기관의 권력 구조에 대응한다. 권력은 위계질서와 욕망으로 표현된다. 위계질서나 욕망은 원론적으로 교류나 상호협력을 연상할 여지가 없다. 탑에서 멀리건과 스티븐의 대화는 그 원론을 구현하고 있다. 멀리건의 지배적 욕망이 그들 사이의 대화를 겉돌게 만들고 탑의 위와 아래 사이에서는 소리를 질러야 소통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성경 속 바벨탑의 사건을 연상시킨다.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을 수직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결과물이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인류는 유랑을 그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하늘에까지 실현하고자 시도했다. 그 욕망을 실현하려는 과정에 그들은 언어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창세기는 그 이유가 신이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창세기 11.7-9). 그러나 이 기록은 욕망의 수직적 구조물을 건설하는 과정에 위계질서 안에서 욕망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벌어졌고, 혼잡한 언어가 상징하는 대로 다양한 욕망의 결집체가 서로 상응하지 못한 채 분열하게 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탑 속의 인물들도 결국 소통의 불발로 서로 헤어지게 된다. 이처럼 욕망의 충돌과 소통의 부재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호명하게 되는 동기이자 결과이다. 호명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권력의 통제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권력 기관이 고안해낸 장치인데, 멀리건은 그 자신이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 과정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2.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허위의식

세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는 아일랜드의 민족 예술과 관련 있다. 그들이 민족 예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결집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영성하나마 한 공간에 거주하게 만드는 힘으로서 작용한다. 헤인즈는 아일랜드 민족 예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대변하고, 멀리건은 그 욕망을 이용해서 헤인즈와 스티븐의 돈을 착복하고자 하며, 스티븐은 식민지의 문학인으로서 저항적 입장을 내비친다. 이들은 민족이라는 관념 때문에 한 공간에 조직되어 있다. 이처럼 조직화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권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거의 맹목적으로 작용한다. RSA를 명시적으로 대변하는 헤인즈가 잠결에 검은 표범을 잡겠다고 충을 들고 돌아다닌 일은 매우 시사적이다. 제국주의는 제3 세계의 무지와 야만을 바로잡겠다고 폭력을 사용하였는데, 검은 표범이 바로 무지와 야만의 상징이다. 제국주의는 문화화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들의 행위는 그가 잠결에 충을 들고 설치는 것과 같다. 그들이 소위 야만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를 모른 채 자기의 꿈속을 헤매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맹목성을 만든다. 이는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지적했듯이 이데올로기 자체가 일종의 허위의식임을 알린다(64-65).

그 현장에서는 이데올로기의 호명을 정당화할 장치가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하여금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유도할 논리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멀리건은 나름대로 창안한 논리를 스티븐에게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스티븐의 눈에는 그의 호명의 근저에 허위의식이 있음이 드러나 보였다. 그는 스티븐을 초라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권력화하기는 했으나 제국주의의 대변인 헤인즈 앞에서는 화려한 언사와 과장된 몸짓으로 호의를 보임으로써 그 모든 노력이 돈 때문임을

드러내 보였다. 그가 구사하는 수사적 화법도 결국 돈을 지향하고 있다.

하녀의 깨진 거울이라! 아래층 옥스퍼드 녀석에게 그걸 말해서 1기니를 굶어내. 그 녀석은 돈 썩는 냄새를 풍기는 데다 너를 신사로도 보지 않아. 자기 끈대가 줄루족에게 설사약을 팔았다는 뭐라나 그런 협잡을 저질러서 땡전 꽤나 벌었지. 진짜로, 키투! 너와 내가 협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섬을 위해서 무언가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헬레니즘화하는 거야.

크랜리의 팔, 그의 팔. (U 1.154-59)

섬나라 아일랜드를 헬레니즘화(문명화)하자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 명분도 헤인즈의 “땡전”을 굶어내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그는 학창시절의 크랜리처럼 스티븐의 팔에 자기의 팔을 걸고서는 자신의 말이 진심임을 표명하려고 했다. 스티븐으로서는 그의 속셈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가 자기를 이용하는 것이나 헤인즈가 잠결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헤인즈가 답에 계속 기거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철회했다. 그러자 그의 불만을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려는 계획이 어려워진 것을 간파하고 멀리건은 “왜 날 더 이상 믿지 않지?”(U 1.161)라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스티븐이 그의 팔을 조용히 풀었다”(U 1.182).

헬레니즘화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상관있다. 민족주의는 문명화, 혹은 민족중흥의 명분을 주로 선전한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그것도 권력을 부식하는 데 이용한다. 왜냐하면, 원래 민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의미의 범주를 확정하기 어려워 이용당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용 전략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그 명분으로 설득하여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도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에 따르면,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이다(6). 진위의 차원이 아니라 상상의 양식(style)에 따라 그 의미가 규정된다. 즉 정치적 담론으로서 민족주의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정의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좋은 점과 ‘그들의’ 나쁜 점을 강

조하고 ‘우리의’ 나쁜 점과 ‘그들의’ 좋은 점을 회색시킨다(van Dijk 739-40).

이런 상황과 상응하는 순간은 스티븐이 우유를 따르는 노파를 보며 민족주의자들의 담론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비단결 암소 그리고 가련한 노파, 옛 시절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들. 떠돌이 노파, 그녀의 정복자와 그녀의 경쾌한 배신자를 시중드는 불멸의 비천한 형제, 그들이 함께 거쳐 간 첩(妾), 신비한 아침에서 온 사자(使者). 시중들지, 혹은 비난할지 그는 어느 쪽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호의를 요청하는 것은 경멸했다. (U 1.403-07)

“비단결 암소”처럼 미화된 민족주의적 수사에 비할 때 떠돌이 노파, 첩 등 불우한 처지를 적시하는 다양한 표현들은 매우 대조적이다. “가련한 노파”가 환기하는 역사의 불편한 기억이 그의 의식에 떠올랐으나 “신비한 아침에서 온 사자”처럼 민족주의적 수사는 이상세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한다. 그래서 스티븐은 그러한 복합적 담론에 “시중들지, 혹은 비난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사자가 현재로서는 우유배달 노파이므로 초라한 행색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그녀에게 우유를 덤으로 조금 더 따라줄 호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이다.

비록 명백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노파와는 달리 스티븐은 멀리 건의 속셈을 간파한 대로 민족주의의 정체를 파악하고는 있다. 그러나 만일 그 화려한 수사를 듣는 사람이 노파와 같은 일반인이라면 그들은 그 수사에 세뇌당할 뿐만 아니라 영국인, 의과대학생이라는 외형적 조건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모국어도 모른다. 자기가 “시중드는” 신사들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대화하므로 그녀는 외경심을 가질 뿐 자기의 주체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녀는 화려한 수사로 민족주의의 명분에 복종하게 하려는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간파하지 못하고 우유를 아침에 신선하게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것이 권력을 위한 봉사인 줄 모른다. 물론, 생업의 고결성을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

니나 그 장면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데올로기는 그녀에게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허위의식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도 파악하고 있다. 그는 자기와 동료들이 건설하는 도시에 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건국신화와 같은 것으로서 소위 정치적 “선전”(Bloom, xviii)에 해당하는데, 그는 이를 “고귀한 거짓말”이라 칭했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막 말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필요의 경우에 생기게 되는 거짓말들 중의 하나를 어떻게든 우리가 고안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높게는 통치자들, 혹은 그들이 아니라면, 나머지 도시민들을 설득할 모종의 고귀한 거짓말을?” (Plato 93)

시민들을 결속하기 위해 건국신화와 같은 목적적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고귀한 거짓말”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저 [시민들]은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그들은 땅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형성되고 양육되는 거야. 무기나 도구들도 제작되고. 그 작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들의 어머니인 땅이 그들을 위로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속한 대지가 어머니이자 유모인 양 그들은 그 대지를 위해 계획하고 누군가 공격하면 방어해야만 해. 그리고 다른 시민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도 땅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Plato 94)

동포애를 진작시키기 위한 설득용으로 이러한 종류의 건국신화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도 상상된 신화와 다르지 않다. 누구의 상상인가? 권력자의 상상이다. 현실은 가련한 노파이지만 살진 암소로 포장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고귀한 거짓말”이다.

IV. 이데올로기의 동굴로부터 탈출하기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가련한 노파로 대변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통찰하고 있는 스티븐도 그 지배 구조 아래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확인했다: “나는 지금은 다른 나다. 하지만 똑같다. 하인이기도 하다. 하인을 섬기는 중이다”(U 1.311-12).

권력 기관의 호명에 좌우되는 이데올로기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그가 거주하는 탑 안의 분위기가 증명한다. 탑 안은 동굴처럼 어둡다.

탑의 침울하고 둥근 천장의 거실 안에 ... 두 줄기 부드러운 햇빛이 높은 벽공으로부터 판석 마루를 가로질러 내리비쳤다. 그리고 그 광선이 마주치는 곳에 구름 같은 석탄 연기와 프라이한 기름 증기가 빙글빙글 돌며 떠 있었다.

— 우리 숨막히겠다, 벽 멀리건이 말했다. 헤인즈, 그 문 좀 열어주겠어? (U 1.313-18)

공교롭게도 이 분위기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환기한다. 탑 내부가 연기로 자욱한 장면은 어둠에 싸여 있는 동굴을 닮았다. 석탄 연기와 기름 증기가 탑 안을 침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문을 열어서 그 연기를 내몰아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듯이 동굴로부터 탈출할 때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그 비유에 따르면, 동굴 안에 갇힌 자들은 언제나 그림자들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를 실재라고 믿는다. 마치 인형극을 보여주듯이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들의 움직임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다 (Plato 193). 그들은 목과 수족에 사슬이 매인 “죄수들”로서 “이미지들의 이미지들”(Plato 403)만을 보게 되어있다. 탑 안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드러낸 것이 석탄 연기와 기름 증기이듯이 그들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나서 불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불빛에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가 점차 주변의 세계를 식별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그는 동굴 밖 태양 아래로 나오게 되고 또다시 눈이 부시게 된다. 서서히 그는 이제까지의 삶이 빈약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드디어 태양도 직접 보게 된다.

비유에 의거할 때, 동굴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스티븐이다. 비록 멀리건이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연 사람은 헤인즈이지만, 그들은 향후에도 답에 그대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스티븐은 그곳을 떠난다. 동굴 속에서 피상적인 현상의 세계에 만족한 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직 철학자들만이 동굴 밖을 여행하여 실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다. 플라톤은 그 일을 철학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철학자들이 하는 일의 본질적 모습이 경계를 넘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동굴의 비유는 사유와 모색을 끊임없이 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스티븐이 그 모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도 이데올로기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상태는 마치 연기가 자욱한 탑 안에서 숨 막히는 상황과 닮았다. 그것이 그가 깨어나고자 하는 악몽 같은 역사의 모습이다. 그 악몽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익과 욕망을 교묘히 은폐하며 지배 대상을 길들여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든다. 동굴의 어둠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멀리건이 수영하려고 벗어놓은 자기의 속옷을 눌러놓기 위해 스티븐에게 탑의 열쇠를 요구하는 장면은 그 교묘함을 형상화한다. 멀리건이 탑의 열쇠를 확보한 것은 계속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군림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탑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그 침울한 어둠에 익숙해져서 본질에서 멀어진 “이미지들의 이미지들”만 보며 살게 될 것이다. 눈앞의 현실에 묶인 “죄수들”로서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상 스티븐은 “죄수들”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 상태에서 탈출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권력 기관의 대변자인 멀리건을 “찬탈자”(U 1.744)로 규정한다. 이는 멀리건이 교묘히 은폐하고자 한 지배 이

데올로기적 행태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예수와 스테반 집사에게서 확인했듯이 모두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스티븐도 멀리건을 떠나면서 집 열쇠를 내어놓고 나중에 월급으로 그의 술값까지 대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집 열쇠와 월급은 생존의 기반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그의 저항도 비슷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는 일종의 자기추방을 결행했다.

이러한 자기추방은 도피가 아니라 미로 같은 현실의 막막함에 대한 실존적 저항의 표시이다. 이 저항을 실존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데올로기의 지배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사람들은 그 아래 호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으되, 탈출하고자 할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현실로부터 스스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악몽 속으로 던져졌고 그것으로부터 탈출의 의지를 발현하기는 하나 다시 그러한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그 반복의 터널을 벗어나고자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탈출은 이데올로기의 지배 권역 바깥에서 현실적인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예수와 스테반 집사 그리고 스티븐으로 이어지는 상호텍스트성은 이데올로기의 지속적 지배와 자기추방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 가정, 조국, 교회라는 권력 기관은 외형적인 압박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지배를 실행하고, 지배 대상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교육되어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찰한 사람은 그 기관에 저항한다. 그때 저항자는 권력 기관에 의해 순교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역사의 악몽을 구성하고, 그 악몽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지속시킨다. 스티븐의 행적은 이러한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화는 알튀세르가 말한 AIEs로서의 교육, 종교, 민족주의 담론에 대해 문학이 취할 수 있는 실존적 저항의 전략이다. 형상화의 기법에 기대어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현실에 영합하는 대신에 자기추방을 결행하는 모습은 스티븐이 예술가로서 역사의 악몽을 벗어나려 한 몸짓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저항은 멀리서 활을 쏘는 것과 같다. 공허하

게 들릴 수 있으나 그 저항에는 과녁에 맞게 될 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실려 있다. 공교롭게도,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원상 그 단어는 ‘전장에서 먼’(far from the battle)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싸우는 자, 예를 들어, 궁수를 연상시킨다. 그것이 스티븐의 현실적 위치이자 존재의 의미이다. 그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싸우지 않지만, 예술이라는 궁수의 화살로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겨냥하고 있다.

V. 결론: 삶에 대한 통합적 전망

조이스는 억압적 현실에 대해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는지를 형상화했다. 그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인물로서 스티븐은 조국의 정치적 억압, 교회의 권위, 아버지의 무능이라는 삼중의 권력 아래에서 고뇌한다. 그러한 비루한 현실을 권력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억압과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가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포착되는데, 그는 원본 텍스트인 예수와 스테판 집사를 현대에 재맥락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억압적 현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역사가 지속적인 악몽임을 알린다. 그 악몽의 중심에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스티븐이 경험하는 조국, 종교, 가정이라는 권력 기관은 지배의 욕망을 영구화하기 위해 조성한 이데올로기 아래로 사람들을 호명하여 그것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든다. 비록 그 과정이 멀리건을 통해 회화화되기는 해도 그의 행적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역할을 암시하고 있다. AIEs, 즉 종교, 민족주의, 가부장적 권위는 마텔로 탑 안에 연기가 자욱했던 것처럼 실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탑 안에서의 삶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상태를 상징하며, 멀리건과 헤인즈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대리인으로 기능한다. 스티

분은 이 어두운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이는 동굴에서 탈출해 진실을 발견하려는 철학자의 역할을 연상시킨다.

그의 탈출은 정치적 민족주의, 종교적 억압, 가정의 의무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실존적 저항이다. 예수와 스테반 집사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권력 기관의 억압에 저항하며 순교한 대로 그도 현실의 지배 질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 그 시도는 그가 생존의 도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실행되므로 사실상의 자기추방적 순교에 해당한다. 그의 이러한 실존적 고투는 단지 시대적 배경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반복되는 역사 속 권력 구조와 인간 존재의 조건에 대한 통합적 통찰을 요구한다. 이것이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들을 재맥락화하는 이유이다.

(백석대)

인용문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2005.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lated by Ben Brewster, Monthly Review Press, 1971.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91.

Aneja, Anil Kumar. "Quest for Identity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Humanities*, vol. 3, no. 5, 2015, pp. 429-35.

Barthes, Roland. *Image-Music-Text*. Translated by Stephen Heath, Hill and Wang, 1977.

Benstock, Bernard. *Critical Essays on James Joyce's Ulysses*. Macmillan, 1989.

Bloom, Allan. Preface. *The Republic of Plato*, by Plato, Basic Books, 1991, pp. xi-xxiv.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lated by Gayatri Chakravorty Spivak, Johns Hopkins UP, 1976.

Genette, Gérard. *Palimpsests: Literature in the Second Degree*. Translated by Channa Newman and Claude Doubinsky, U of Nebraska P, 1997.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ited by Chester G. Anderson, Penguin Books, 1977.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Vintage Books, 1986.

Kristeva, Julia.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Translated by Thomas Gora et al., Columbia UP, 1980.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The German Ideology: Part 1*. Edited by C. J. Arthur,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 Plato. *The Republic of Plato*. Translated by Allan Bloom, Basic Books, 1991.
- van Dijk, Teun A. "Politics, Ideology, and Discourse."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edited by Keith Brown, 2nd ed., Elsevier, 2006, pp. 728-40.

Abstract

Intertextuality and an Integrated Vision of Life: A Young Artist's Quest

Ihnkey Lee

This paper focuses on the “Telemachus” episode of James Joyce’s *Ulysses* and explores how the artist Stephen attempts to resist and escape from an oppressive reality through the lens of intertextuality. Joyce reconstructs *Ulysses* by using Homer’s *Odyssey* as a hypotext, exposing how the symbols of authority—nation, religion, and family—reproduce ideological control and induce the voluntary submission of the oppressed. Stephen, aware of these power structures, seeks to break free, and through an intertextual link with the biblical figure of Stephen the martyr, is portrayed as a martyr-like artist. He rejects ideological obedience to country, religion, and family, choosing instead a path of self-imposed exile to escape the nightmare of history. Joyce thereby invites the reader not to uncover a singular authorial intent, but to construct layered meanings, suggesting through literature that only those who discern the mechanisms of ideology can engage in existential resistance and move toward truth.

■ Key words : intertextuality, ideology, nightmare of history, self-exile, martyrdom, existential resistance

(상호텍스트성, 이데올로기, 역사의 악몽, 자기추방, 순교, 실존적 저항)

논문접수: 2025년 5월 30일

논문심사: 2025년 5월 30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19일